

올레핀 고부가화 및 중합

고영수*
공주대학교
(ysko@kongju.ac.kr*)

세계적으로 셰일가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셰일가스 사용 비중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나프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고유가시대에 올레핀의 고부가화라는 당면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석유화학산업의 국내외 경제적, 기술적 상황에서 올레핀의 고부가화의 한 측면으로 프로필렌, 에틸렌, 디엔 등의 모노머를 이용한 m-PP, m-PE, 폴리디엔 등 고부가 고분자물질의 합성과 응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